

# 광주·전남지역 총선 '1년 앞으로'... 변수와 관전포인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해 벽두부터 지역 정가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등 '총선 시계(時計)'는 빨라지고 있으나 크고 작은 정치적 변수가 많아 '총선 시계(視界)'는 흐릿하기만 하다.

이슈를 집어삼키며 정치권 블랙홀이 된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정치개혁, 선거구 개편, 거대 양당 정치에 맞선 대안세력 등장, 중앙급 신인들의 도전과 중진들의 귀환, 현역 물갈이론 등 변수도 많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8일 광주·전남 지역정가에 따르면 제22대 총선일(2023년 4월10일)이 1년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 입지자들이 곳곳에서 선거 준비에 나서고 있다.

입지자들은 출마예정 지역구에 베이스캠프 격인 개인사무실을 차리고, 얼굴 알리기를 통한 표발감이에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출마 지역을 정하지 못한 채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심 향기에 나서는 예비입지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나 사법리스크를 포함한 다양한 변수로 총선 구도는 예측 불허, 시계 제로라는데

정치권 블랙홀 된 '사법리스크', 총선 판도 최대 변수  
선거구 확정, 중·대선거구제도 '빅 이슈'...대안도 다양  
법조·관료 중량급 신예들 등장과 올드보이 속속 귀환  
'교두보 마련'... 與 국민의힘과 진보당-정의당의 야심

지역정가의 이구동성이다. 전에 없는 불확실성으로 총선 판도는 최소 2~3차례 커다란 변곡점을 찍고, 입지자 구도와 경선·본선 판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보고 있다.

### ◆사법리스크(發) '정계 회오리'와 물갈이론

우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 당선'이라는 공식이 통했던 지역특성상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태풍의 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FC 광고비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 출석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후 이어질 수사에서 정치적으로 중대 위기를 맞느냐, 혐의를 털고 생존하느냐에 따라 민주당 뒷발 광주·전남에 회오리 바람이 거세게 불고 총선판도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중앙당 권력 구도 변화와 함께 지역 내 친 이재명계와 비(반)이재명계 의원들의 향배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호남정치 실종과 '주변부 전략' 여론 등과 맞물려 지역정가와 지역민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민주당 실력부재론, 현역 물갈이론이 대두될 경우 과반 이상 교체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분당과 제3세력 대안론이나 '빅텐트'까지 조심스레 거론되는 이유로 큰 흐름에선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역대 총선 물갈이 폭은 16대 61%, 17대 66%, 18대 52%, 19대 35%에 달했고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18명의 지역구 의원 중 광주 7명에 전남 8명을 더해 15명, 비율로는 83%가 새얼굴로 교체됐다.

다자구도, 당 대 당 후보 단일화 등이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총선 때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물갈이에 대해 유권자 과반이 찬성했었고 이는 실제 투표로도 이어져 큰 폭의 물갈이는 매년 현실화됐다.

### ◆선거구 확정과 중·대 선거구제 '빅이슈' 선거구 확정과 중·대 선거구제 등 '선거구의

제도 빼놓을 수 없는 변수이자 관전포인트다.

선거구 확정에는 가파른 인구 감소로 일부 선거구에서 인구하한선(13만9000명)을 맞추지 못할 개연성이 높아지면서 전에 없이 주목받고 있으며, 지역내에선 '여수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가 위태롭다. 22대 총선 선거구 확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1월31일이다. 정치권에선 전남 의석수 10개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분할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승자 독식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도 이슈다.

"기득권을 내려 놓자" "양당 독재와 지역구도 등 우물 안에서 벗어나자"는 소신 발언이 적지 않지만, 당 차원에서, 개별 의원 차원에서 관여별 예상 득표율 등 유·불리를 놓고 셈법이 복잡하다. 말잔치에 그칠 공산도 크다. 일각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완전국민경선제, 4인 대선거구제가 맞물려 거론되고 있다.

### ◆중량급 신예들의 등장과 올드보이들의 귀환

중량급 신예들의 등장과 올드보이, 중진들의 귀환도 관심사다. 신예들 중 인지도 측면에서도 현역과의 '맞장 경쟁력'을 지닌 법조계, 관료 출신 중량급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어 돌풍의 주역이 될 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지, 이들의 최종 성적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6선(選)'인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 3선 출신 '예산통' 장병완 전 의원, 여기에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총리, '행정 전문가'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 복당 또는 복권을 통해 귀환한 중진들의 역할론도 관전포인트다. 일부는 직접 링 위에 오르고 일부는 신예들의 정치적 멘토를 자청하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돌아온 중진들이 거대 담론과 미래가치 제시를 통해, 추락한 호남 정치를 다시 중심부로 견인할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 ◆'교두보 마련' 국민의힘-진보정당의 야심

여당인 국민의힘과 군소 진보정당들의 도전도 중요 관심사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보수정당 후보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어낸 여세를 몰아 광주와 전남에서 최소 1석 이상을 당선시킨다는 전략 아래 당원 확보와 지역 현안 쟁거리에 올인하고 있다.

진보당은 새해 벽두부터 광주 7명, 전남 4명 등 내년 총선 후보자 명단을 확정 발표하는 등 선제 공격에 나섰다. 정의당도 '당을 다시 만들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정당 지지도 2배, 유권자 1% 당원 조직, 민생센터 설치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들 군소 정당은 중·대선거구제도의 개혁이 정치권 이슈로 제기된 점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노동자와 서민, 청년들의 표심을 파고 들고 있다.

이슬비기자

## 전남개발공사 "새로운 도약 새로운 20년 준비에 역점"

장중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최근 시무실에서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20년"을 모토로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사업모델 발굴과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데 경영의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먼저, 장 사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 경제 불안과 가파른 급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지난해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리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경영한다"는 도영삼굴(兔營三窟)처럼 미래에 대한 철저한 예측과 대응방안을 세워 놓으면 위기를 극복한 기회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 택지를 발굴하여 수익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귀농·귀촌인의 수요 맞춤형 주택과 소규모 마을정비,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등 지역별 맞춤형 공공주택 사업을 발굴하여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였다.

또한,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보다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확대해 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사장은 "도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자 2023년을 'ESG 경영의 원년'으로 삼고, 윤리·청렴 기반의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과 개발이익의 적극적 사회 환원, 사회공헌활동 확대, 직원모두가 하나된 개방적 소통과 협업 문화를 만들어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러한 신년사 내용을 구체화해, 1월 중 본사 및 사업단별 업무계획 보고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전남도, 무궁화 선양 유공 국무총리 표창

가로수 414km, 동산·정원 91개소 조성...나라사랑 정신 확산



전남도는 최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국가 상징물인 무궁화의 보급·선양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다.

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애늬님께서 재민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
5분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분위	1.7배	2.1배	2.7배
3분위			48,103원
2분위			26,697원
1분위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합 129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박우열

###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